

2016년도(2015년도 실적 기준) 경영평가 결과

1. 평가결과 : “B등급”

○ 평가결과표 총괄

평가영역	평가부문	세부지표	배점	득점	등급
계			100.00	78.16	B
리더십-전략 (10점)	소 계		10.00	7.67	B
	리더십 (5점)	기관장 리더십	3.00	2.49	A
		책임경영	2.00	1.52	B
		소 계	5.00	4.01	A
	전략 (5점)	비전 및 전략개발	3.00	2.23	B
		주요사업 추진활동	2.00	1.43	B
		소 계	5.00	3.66	B
경영시스템 (30점)	소 계		30.00	24.40	A
	조직관리 (5점)	조직구조의 적절성	2.00	1.80	S
		성과관리의 적절성	3.00	2.60	A
		소 계	5.00	4.40	A
	인사관리 (5점)	인사관리의 적절성	5.00	4.40	A
	재정·예산관리 (5점)	재정관리의 적절성	3.00	2.27	B
		예산관리의 적절성	2.00	1.26	D
		소 계	5.00	3.53	B
	고객만족제고노력(5점)	고객관리의 적절성	5.00	3.92	B
	정책준수노력 (4점)	정책준수노력의 적절성	4.00	4.00	S
경영성과 (60점)	경영평가결과 환류(3점)	경영평가결과 활용노력의 적절성	3.00	2.30	B
	기타 (3점)	사회적기여 및 구성원의 지역참여도	2.00	1.85	S
	소 계		60.00	46.09	B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7점)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	3.00	3.00	S
		문화예술 동아리 활성화	2.00	1.46	B
		부평옥션	2.00	2.00	S
		소 계	7.00	6.46	S
	자체재원 확충 (5점)	후원회 운영	3.00	3.00	S
		공모사업 선정	2.00	2.00	S
		소 계	5.00	5.00	S
	부평아트센터 운영 (30점)	기획공연	7.00	4.15	C
		창작공연	7.00	7.00	S
		기획전시	3.00	3.00	S
		문화나눔	6.00	2.21	D
		아카데미	2.00	1.00	D
		공연장 운영	5.00	2.90	D
		소 계	30.00	20.26	B
	문화사랑방 운영 (8점)	공연사업	6.00	3.60	D
		아카데미	2.00	0.82	D
		소 계	8.00	4.42	D
	위탁시설 운영 (10점)	구립도서관 운영	3.00	3.00	S
		청소년수련관 운영	4.00	3.95	S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3.00	3.00	S
		소 계	10.00	9.95	S

2. 경영평가결과 요약

가) 총평

- 부평구 문화재단은 2016년(2015년 실적) 경영실적 평가결과 78.16점으로 B 등급을 받았음.

- 부평구문화재단은 킬러콘텐츠 개발, 생활문화 활성화,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조성 등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가지고 미래의 성장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적합한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있음.

다만, 비전과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재정계획, 주요사업의 성과관리 시스템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함.

정책의도에 맞는 중장기 계획의 실천을 위하여 이사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 부평구문화재단은 설립이 된 지는 10년이 되었음. 그러나 설립목적에 맞게 부평구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고, 부평구민의 문화 향수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관으로서, 경영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인사 조직분야는 2015년에 이러한 미션과 조직설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직 통합을 실시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음. 그러나 여전히 기관의 조직구조와 인사 운영 등이 조직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전사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됨.

- 재정 및 예산 운용 분야에 있어서는 예산절감, 효율적 운영, 결산 및 회계관리 제도에 따른 적절한 운영,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등 다방면에 걸쳐 노력하였다고 평가됨.

중장기 재무계획이 미수립되어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되었다고 판단됨.

- 경영 성과 분야는 축제 등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2014년에 비하여 훌륭한 성과를 올렸으나 공연장(극장) 운영과 관련한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저조하거나 2014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음.

위탁시설 운영은 전반적으로 우수하였음.

- 2016년도 실적평가를 위하여 현재의 세부지표 및 평가방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나) 리더십-전략

- 리더십-전략은 7.67점으로 B를 받았음.

- 부평구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 시대에 맞추어 부평구문화재단만의 차별화된

경영전략으로 지역문화의 가치와 브랜드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며, 윤리헌장·윤리강령의 제정 등 기관내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킬러콘텐츠를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됨.

- 다만, 기관의 전략목표, 전략과제는 훌륭하게 설계되었으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부족하고 재무 및 예산계획의 구체성도 미흡하여 실현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전략과제도 집행기관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등 사회적 책임의 이행에 소홀하였고 사업평가와 관련 부서 평가가 연계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음.

다) 경영시스템

- 경영시스템은 24.40으로 A를 받았음.
- 다년도에 걸쳐 성격이 다른 기관들이 수탁되면서, 조직과 인사 운영이 복잡해진 측면이 있음. 이러한 복잡해진 조직과 인사 운영을 성과관리를 통해 전략적으로 운영해나가려는 노력이 인정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의 공과를 포함하여, 향후 부평구문화재단의 설립목적 및 비전에 대하여 외부적 시각을 포함한 중장기적 전략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성과관리제도의 경우 2016년 실시 결과에 따라 직원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실시 결과에 이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 조사를 통하여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본부장 등은 2-3년간 계약직제를 통하여 운영되나, 이들의 성과관리 역시 직원들의 성과관리와 연계가 필요하며, 매년 경영성과계약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하여 후원회를 구성한 자구노력은 매우 높이 평가되며, 사업예산 대비 자체수입율이 높은 점도 높이 평가됨.

단, 중장기 재무계획을 연내에 수립하여 내년도부터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담당자의 중장기 재무계획 수립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향후 경영평가에서는 보다 좋은 결과가 예상됨.

라) 경영성과

- 경영성과는 46.09점으로 B를 받았음.
- 전체적인 실적은 2014년에 비하여 소폭 상승하여 통상의 수준을 유지하였다고 평가함.

- 평가지표별로 성과의 편차가 심해 내용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많음.
- 지역이 갖고 있는 대중음악의 역사성을 밴드페스티벌이라는 야외공연 프로그램으로 추진하여 음악도시로의 관심도를 높이는 등 지역주민의 문화적 요구를 반영한 신규 프로그램을 다수 개발하여 추진하였음.
- 후원회 운영을 통하여 부평구문화재단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였고 후원금재원으로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음.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예술인만이 아닌 지역의 기업가와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었음.

- 부평아트센터의 기획공연은 2014년 세월호, 2015년 메르스의 영향과 국내 공연시장의 침체, 기획공연 예산의 축소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점차 실적이 하락하고 있으며, 수익률 또한 낮아져 기준년도에 비하여 성과가 저조하였음.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우수한 공연프로그램으로 수익률을 높여 경영성과를 제고해야 하는 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역할과 수익보다는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문화예술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조화로운 운영이 필요함.

창작공연은 2015년에 외부초청공연, 지역사회와 협업체계 구축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함.

향후, 부평구 문화재단의 레퍼토리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공연내용의 보완뿐 아니라 재원조달, 마케팅 등을 심층분석하여 중·장기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기획전시는 양적으로 2014년에 비하여 훌륭한 성과를 올렸음. 향후 단순한 관람인원의 증가보다는 질적인 성과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예산의 한계로 대형전시를 개최하지 못하여 아쉽다는 의견이 있었음.

문화나눔, 아카데미, 공연장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기준년도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부진하여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문화사랑방 운영은 2014년에 비하여 낮은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함. 입장료를 인상하여 수익률은 개선하였으나 관람인원이 감소하였음. 문화사랑방의 관람객 감소의 원인이 단순히 입장료의 인상인지 공연선택의 문제인지 환경적 요인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위탁시설 운영은 훌륭했음.

경영성과의 지표를 모두 목표부여 방식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마) 우수한 점

- 2016년에 처음 실시되기는 하나 2015년 1년간 성과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있었다고 판단됨. 특히, 핵심업무 및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평가, 역량평가, 복무평가를 도입하여 단순한 정성적 근무성적 평정에서 벗어나 성과관리가 될 수 있도록 재단의 미션 및 비전 달성에 필요한 직원의 역량지표를 설정하였음.
- 재정자립도 개선을 위한 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됨. 현재는 회원 수가 47명이고, 모금액이 1억 7,600원으로 1인당 평균 약 375만원의 후원을 받았음. 다소 회원 수는 적다고 할 수 있으나, 인원 대비 모금액은 높은 편임. 향후 후원규모가 소액, 예를 들어 1만원~10만원인 회원도 다수 확보하여 후원금의 절대적인 규모보다 부평구민으로서의 참여의식을 제고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됨.
- 경영평가 계획에서는 사업예산 대비 자체수입율이 30% 이상인 경우 만점을 부여하도록 계획하고 있는데, 부평문화재단의 경우 2015년도 자체수입비율이 48.34%로 매우 높은 수준임.